비정규직 넘쳐나는 고흥군

민선3기 4년간 '임시 일용직' 119명 늘려

규정 어기고 상시 고용·특별채용 논란

고흥군이 사무보조 역할을 하는 '일시사역인부(임시 일용직)'를 지나치게 많이 고용하고 있는데다, 상시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을 어기는 등 인력관리가 편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군에 따르면 주업무가 사무보조인 일시사역인부의 숫자는 지난달 말 현재 모두 167명으로, 지난 2002년 48명에 비해 민선 3기 4년 동안 119명이 증가했다.

이에따라 122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상근직원까지 포함할 경우 고흥군청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원은 전체 정규직원 745명의 38.7%인 289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이와 함께 일시사역인부의 경우 상시 고용을 금지하고, 해당 업무가 끝나면 사역을 중지하도록 규정한 현행 예산편성지침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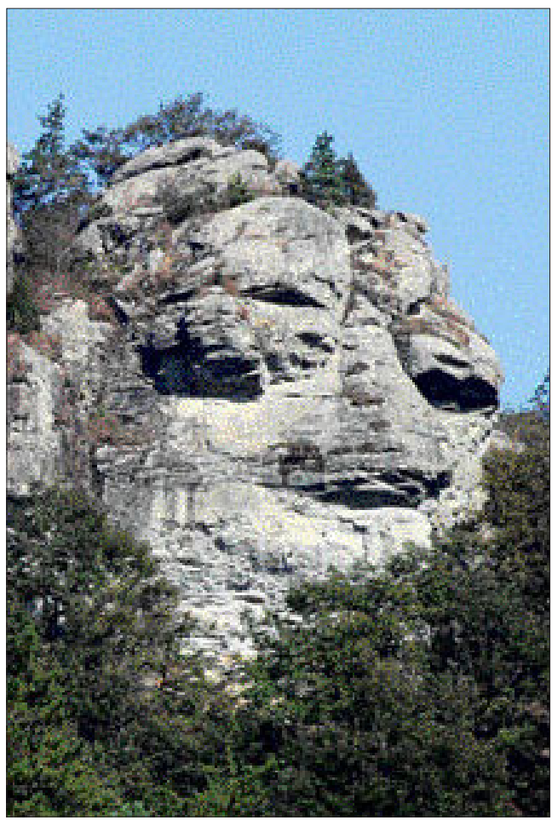
실제로 군은 사무보조 업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재계약 등 각종 편법을 통해 일부 일시사역인부들을 장기간 고용하고 있는데다, 지난달 실시한 '특별임용시험'에서는 5년 이상 일시사역인부로 일해온 4명을 정식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일시사역인부의 급여수준에 대한 특별한 기준없이 각 과별 예산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예산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만도 연간 15억원대에 이르러, 가뜩이나 열악한 군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군 관계자는 "일시사역인부 고용 필요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선심성 행정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근무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정규직원 못지않은 업무를 하면서도 열악한 근무조건과 박봉에 시달려온 일시사역인부들을 정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큰 바위 얼굴'? 강진군 군동면 화방산(253m) 정상에 있는 큰 바위가 사람 얼굴과 흡사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백혈병 투병 손정현 언니 힘내세요"

장성 월평초등, 졸업생 손양에 성금 전달

장성군 월평초등학교(교장 임광호)는 최근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본교 졸업생 손정현(14·장성 황룡중2) 양 돕기운동을 벌여 모금한 238만 7천930원을 손양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사진〉

손양은 지난달 말 동생 은석(7)군의 골수를 이식받는 수술을 성공리에 마쳤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

담양군-전남대 바이오하우징사업단

한옥캠프 '청죽헌' 낙성식

담양군과 전남대 바이오하우징 연구사업단은 지난 6일 담양 시가문화촌에서 한옥캠프 '청죽헌(淸竹軒)' 낙성식을 가졌다. 〈사진〉

한옥캠프 청죽헌 낙성식에는 박정규 담양부군수를 비롯 전남대 김윤수 대학원장, 송진규 전남대학교 바이오하우징 연구사업단장, 캠프참여 학생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옥캠프 청죽헌은 온돌방 3실, 대청형 거실 1실이 딸린 20평 규모로, 지난 1월 착공해 10개월만에 완공됐다.

담양군 관계자는 "청죽헌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한옥건축물로 죽녹원과 관방제림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

고구마꽃 활짝 보성군 득량면 해평 4리 한 마을에서 진귀한 고구마꽃이 보라색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보성 쪽파 가격 하락 '울상'

지난해의 절반 수준 … 일손도 모자라 어려움 가중

친환경 농법으로 유명한 보성 '쪽파'가 최근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재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다.

'보성쪽파'는 지난해 평당 밭떼기 거래가격이 최고 5천원에 달했으나 올해는 고온과 최근에 내린 비로 발육상태가 고르지 못해 3천500원 선으로 크게 낮아졌으며 작년 1다발에 1천원까지 나갔던 도매가격도 500~600원으로 절반가량 떨어졌다.

회천면 군농리에서 쪽파를 재배하고 있는 임효자(43)씨는 "웃자란 쪽파는 조금이라도 빨리 수확해줘야 되는데 일손도 부족해 걱정"이라며 "김장철이 오면 가격이 조금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예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3만원 정도에 농가에서 구입했던 쪽파의 종자가격도 올해는 6만원으로 2배나 뛰어올라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에따라 보성군은 도시지역 직판장 개설에 나서는 등 다양한 쪽파소비 시책을 강구중이다. 한편 보성지역에는 900ha에서 쪽파가 재배돼 연간 200억원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장성·곡성군 90병상 규모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장성군과 곡성군에 90 병상 규모의 '공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이 건립된다.

장성군과 곡성군은 최근 '공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유치가 확정돼 국비 등 36억 원을 들여 2009년 개원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이 병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요양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

"해남의 풍요와 번영 기원합니다"

해남문화원, 10일 현산면서 전통 굿판

해남문화원(원장 김용호)이 오는 10일 '해남의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전통 굿판을 벌인다.

이번 굿판은 현산면 고현리와 봉림리, 덕흥리 일대에서 펼쳐지며 100여명의 굿패들이 풍물을 치고 이동하면 주민과 관광객들이 수백개의 소망기를 들고 함께 어울려 걷는 것으로 시작된다.

특히 마을을 지날 때 마다 전통 거리굿과 마을과 마을을 잇는 다리굿, 마당밟이굿, 밤굿등을 펼치며 전통 원형을 재현한다.

부대행사로는 부채에 가훈써주기와 판소리 공연, 짚풀공예참여, 전통놀이인 투호, 윷놀이 등이 마련되어 있다.

해남문화원은 이번 행사를 위해 지역 주민 300여명을 3개월간 교육시켰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